



담당 부서: 복지정책실 안심소득추진과

안심소득추진과장	노수임	02-2133-8424
안심소득협력팀장	홍승현	02-2133-8434
담당자	김영미	02-2133-8435
	이윤하	02-2133-8427
관련 누리집	https://sifsi.org	

사진 없음 사진 있음 쪽수: 14쪽

오세훈표 미래복지 '안심소득' 중간조사 첫 발표...현행 대비 사각지대 해소·탈수급 비율↑

- 총 5회 예정 중간조사의 첫 결과 발표...근로이익도 저해시키지 않는 걸로 확인
- 서울시, 12.20~21 DDP서 '2023 서울 국제 안심소득 포럼'...소득보장 제도 나아갈 길 모색
- 오 시장, 빈곤 연구 전문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와 특별대담...국내 실정 맞는 복지제도 논의
- 서울시, 미국 LA시·시카고시 등과 「세계 소득보장 네트워크」 업무 협약...국제 교류 신호탄

- 국내 첫 소득보장 정책실험으로 오세훈 서울시장의 추진 중인 미래형 복지모델 '안심소득' 시범사업의 1차 중간조사 최종결과가 나왔다. 현행 복지제도에서 지원을 받지 못했던 가구까지 폭넓게 챙기는 동시에 높은 탈 수급률을 보여 참여자들의 근로 의욕은 저해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이번 1차 중간조사 최종결과에는 시범사업 효과 측정의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1단계 시범사업 참여 1,523가구(지원가구 484가구, 비교 집단 1,039가구)가 10개월 간 지원 받은 시점에서 수집된 공적자료도 포함되어 분석됐다.

- 서울시는 20일(수)부터 21일(목) 양일간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2023 서울 국제 안심소득 포럼」을 개최하고 ‘안심소득 시범사업’의 1차 중간조사 결과를 최종 발표했다고 밝혔다.
 - ‘안심소득’은 저소득층 가구(중위소득 85% 이하, 재산 3억 2,600만원 이하) 대상으로 중위소득과 가구소득 간 차액의 절반을 지원하는 제도로,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형으로 설계됐다.
 - 지난해에는 중위소득 50% 이하 대상으로 1단계 시범사업 지원가구 484가구(비교집단 1,039가구)를 선정했으며, ’22년 7월 첫 급여 지급을 시작으로 3년간(’22. 7.~’25. 6.) 지원한다. 올해는 중위소득 85% 이하로 대상을 확대해 2단계 지원가구 1,100가구(비교집단 2,488가구)를 선정해 지난 7월 첫 급여 지급을 시작으로 2년간(’23. 7.~’25. 6.) 지원한다. 시는 내년도에는 안심소득 지원가구를 확대할 방침이다.

- 서울시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소득 격차 완화를 위해 지난해 7월부터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가운데, 안심소득의 효과성과 실현 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해 시범사업 참여가구 대상으로 5년간(’22. 5.~’27. 6.) 성과평가도 실시한다. 이번 중간조사는 안심소득 지급 중 실시하는 반기별 총 5회의 중간조사 중 첫 번째 발표다.

- 올해로 2회를 맞는 「2023 서울 국제 안심소득 포럼」은 ‘소득보장 제도가 나아갈 길’이라는 주제로 세계 각국에서 소득보장 실험을 이끌고 있는 전문가와 세계적 석학들이 참여한 가운데, 특별대담, 기조연설을 비롯해 양일간 3개 세션과 특별세션으로 진행된다.
 - 서울시 안심소득 1차 중간조사 최종발표와 해외에서 진행 중인 소득보장 정책 실험 사례를 공유하는 한편, 미국 내 주요 도시·연구기관과 협력을 모색하는 「세계 소득보장 네트워크(Global Income Security Network, GISN)」 결성을 위한 업무 협약 체결과 소득 격차 및 빈곤 완화에 대한 정부의 역할 등이 논의된다.

12월 20일(수), 특별대담

□ 포럼에 앞서, 오세훈 시장은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특별대담에 참석해 2019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에스테르 뒤플로(Esther Duflo) 매사추세츠공과대 교수와 ‘복지 사각 및 소득 격차 해소를 위한 새로운 보장제도 모색’이라는 주제로 국내 실정에 맞는 복지제도를 논의했다.

○ 2019년에 역대 최연소이자 여성으로는 두 번째로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에스테르 뒤플로 교수는 2003년 빈곤퇴치연구소를 공동 설립하여 20년간 40여 개 빈곤국을 직접 찾아다니며 200개 이상의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등 빈곤 문제 연구에 헌신해 온 개발경제학 전공의 경제학자다. 특히, 자연과학 분야에서 사용하는 무작위 대조 실험* 방법을 경제학 분야에서 최초로 연구에 도입, 정책실험을 통해 빈곤층 지원의 효과성을 검증하는 데 기여했다.

※ 무작위 대조 실험(Randomized controlled trial) : 연구방법론 중 하나로, 실험에 참여한 대상자를 무작위로 지원 집단(실험군)과 비교 집단(대조군)으로 나누어 결과를 비교하는 실험



에스테르 뒤플로
(Esther Duflo)

- ◆ 소속/직위: 미국 매사추세츠공과대학교 경제학 교수
- ◆ 주요 이력
 - '03년 압둘 라티프 자밀 빈곤퇴치연구소(J-PAL) 공동 설립
 - * J-PAL(Abdul Latif Jameel Poverty Action Lab)
 - '19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역대 최연소, 여성 두 번째)
- ◆ 주요 저서
 - ('19) 힘든 시대를 위한 좋은 경제학
 - ('11) 가난한 사람이 더 합리적이다

□ 황윤재 서울대 경제학 석좌교수를 좌장으로 한 특별대담에서 뒤플로 교수는 “많은 경제학자는 일부의 사람들이 일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위험성 때문에 일정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 도입에 대해 우려한다”며, 이러한 우려는 과장된 경향이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안심소득이 무작위 대조 실험으로 시행되는 점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이는 등 시범사업이 정교하게 설계되었음을 방증했다.

○ 오세훈표 미래복지모델인 ‘안심소득’ 역시 무작위 대조 실험으로 설계돼 국내 최초의 소득보장 정책 실험이라는 평을 받고 있다.

- 이에 대해 오세훈 시장은 “안심소득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는 달리 정해진 소득 기준을 넘어도 자격이 유지되며 소득이 적을수록 많이 지원받는 하후상박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며 “실업, 폐업 등 갑작스럽게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 스스로 가난하다고 증빙하지 않고 자동으로 안심소득을 지급하기 때문에 현행 복지제도와는 달리 근로 의욕을 저하시키지 않도록 만들었다”고 말했다.
-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가장 큰 문제는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도 망설인다는 점이다. 정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초과되면 수급 자격이 박탈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복지 시스템은 수급자들의 근로 유인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12월 20일(수), 1일차 프로그램

[기초 세션 : 안심소득 제도의 근거와 증거]

- 포럼의 기초 강연은 ‘안심소득 제도의 근거와 증거’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에스테르 뒤플로 교수는 빈곤국의 경우, 보편적 기본소득이 적합하다고 주장하면서도, 한국과 같이 지원 대상을 파악할 수 있는 행정 역량을 갖춘 국가는 선별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더 많이 지원할 수 있으며, 그 효과는 더욱 혁신적이기 때문이다.
- 선별 지원은 세금 정보를 기반으로 사전에 지원받을 수 있는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면 제도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해 권리를 활용하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 강연 후반부에는 청중들을 향해 ‘안심소득이 사람들을 게으르게 할까?’에 관한 질문을 던지면서, 인도네시아 등 여러 국가에서 볼 수 있는 실험 증거에 따르면 그러한 효과는 없다고 단언하기도 했다.

[세션 1 : 안심소득 시범사업 1차 중간조사 결과]

- 첫 번째 세션에서는 이정민 서울대 교수가 ‘안심소득 시범사업의 1차 중간조사 결과’를 최종 발표했다. 이번 조사 대상은 지난해 7월 선정된 1단계 시범사업 참여 1,523가구(지원가구 484가구, 비교집단 1,039가구)이며, 설문 자료와 공적 자료를 기반으로 결과를 분석했다.
 - 설문조사는 안심소득 급여를 6개월 지원 받은 시점('22. 7.~'23. 1.)에서 실시했으며, 공적자료는 10개월 지원 받은('22. 7.~'23. 5.) 시점에서 수집된 자료다.
- 주요 결과로는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대비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높은 탈수급 비율, ▲지원가구의 근로소득 증가, ▲비교가구 대비 지원가구의 식품·의료 서비스·교통비 등 필수 재화 소비 증가, 정신건강 및 영양 개선 등이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대비 복지 사각지대 해소 기여]

- 1단계 시범사업 지원가구(중위소득 50% 이하 484가구) 중 현행 복지제도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한 가구 비율이 54.1%(262가구)로, 안심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비해 저소득층을 더욱 폭넓게 지원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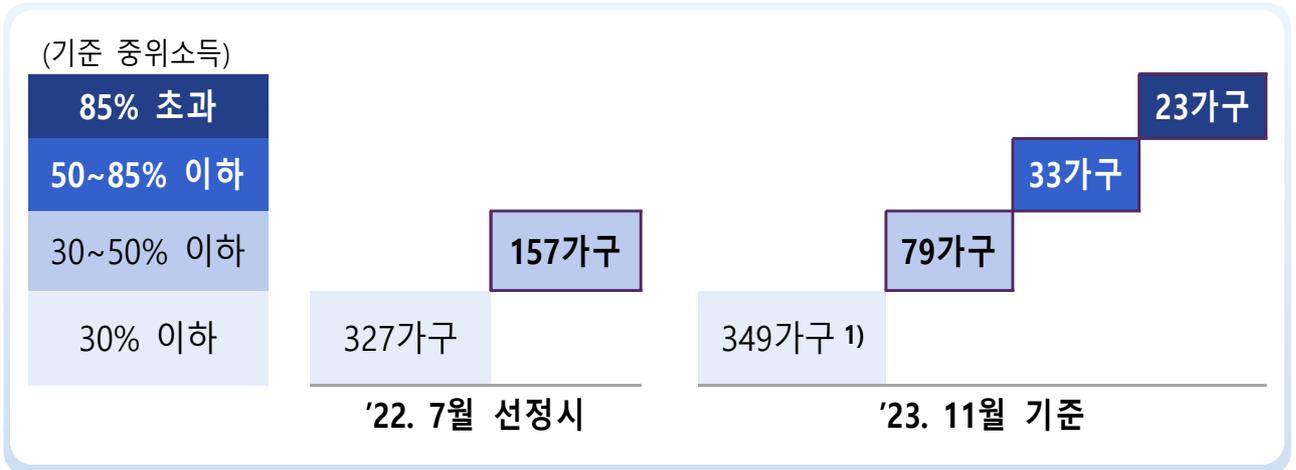
계	비수급 가구	수급 가구	수급가구 내역							
			기초생활보장			기초 연금	청년 수당	청년 월세	서울형 주택바우처	서울형 기초
			소계	생계	주거					
484 (100%)	262 (54.1%)	222 (45.9%)	129 (26.7%)	52 (10.7%)	77 (15.9%)	114 (23.6%)	3 (0.6%)	0 (0%)	4 (0.8%)	0 (0%)

※ 기초연금 가구는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와 중복 포함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대비 높은 탈수급 비율]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상의 공적자료 기준

- 1단계 시범사업 지원가구 중, 23가구(4.8%)는 '23년 11월 기준으로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85% 이상으로 증가하여 더 이상 안심소득을 받지 않고 있다. 선정 당시 소득 기준인 중위소득 50%를 초과한 가구도 56가구(11.7%)다.



['22. 7월 중위 50% 이하 → '23.11월 중위 50% 초과 : 가구원 수별, 가구주 연령별 현황]

구분 (단위 : 가구)	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이상 가구	
	지원 가구수	중위 50% ↑								
계	477	56 (11.7%)	190	18 (9.5%)	135	15 (11.1%)	84	13 (15.4%)	68	10 (14.7%)
39세 이하	149	23 (15.4%)	60	10 (16.7%)	39	3 (7.7%)	27	6 (22.2%)	23	4 (17.4%)
40~64세	245	25 (10.2%)	98	6 (6.1%)	68	8 (11.8%)	44	6 (13.6%)	35	5 (14.3%)
65세 이상	83	8 (9.6%)	32	2 (6.3%)	28	4 (14.3%)	13	1 (7.7%)	10	1 (10%)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정해진 소득 기준을 넘으면 수급 자격이 박탈되지만 안심소득은 소득 기준을 초과해도 자격은 유지된다. 실업 등으로 가구소득이 줄면 자동으로 안심소득을 지급하기 때문에 현행 복지제도 대비 근로 의욕을 저해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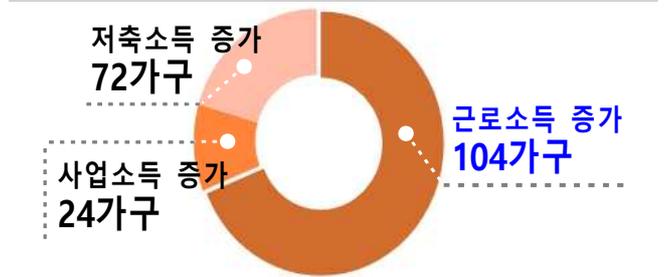
1) '23. 11월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349가구 중 10가구의 경우 실제 가구소득 변동은 없으나, '23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5.47%)으로 중위 30% 이하 가구에 신규 포함 (349가구 중에는 타도시 전출 등으로 소득 조사가 되지 않는 7가구가 포함됨)

[지원가구의 근로소득 증가]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상의 공적자료 기준

○ 1단계 시범사업 지원가구 중, 104가구(21.8%)는 '23년 11월 기준으로 근로 소득 증가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 ▶ 근로소득 100만원(월) 이상 증가 : 49가구 (1,000천원 ~ 5,369천원)
- ▶ 근로소득 50만원(월) 이상 증가 : 65가구 (500천원 ~ 5,369천원)



[비교가구 대비 필수 재화 소비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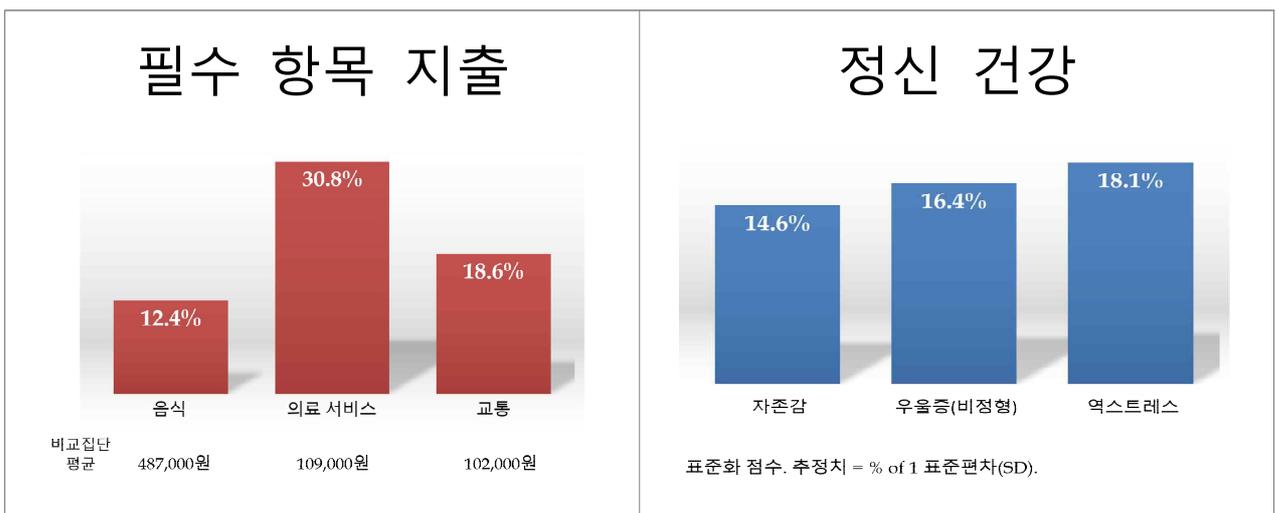
* 참여가구 설문조사 기준

○ 식료품, 의료 서비스, 교통비에 대한 지출이 각각 비교집단 대비 12.4%, 30.8%, 18.6% 증가하였다.

[비교가구 대비 정신건강 개선]

* 참여가구 설문조사 기준

○ 자존감, 우울증, 스트레스 등 정신건강에 대한 처치 효과는 각각 비교집단 대비 14.6%, 16.4%, 18.1%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 신체 및 정신 건강이 능동적인 노동시장 참여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점을 고려하면, 이번 단기 변화에서 나타난 지원가구의 전반적인 삶의 질 향상이라는 긍정적 효과는 장기적으로 노동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안심소득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비해 노동공급을 촉진할 수

있다는 점도 파악됐다. 다만 안정된 결과 도출을 위해서는 시범사업을 서울시 전체 또는 전국으로 확대하여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의 의견이다.

- 주제 발표 이후에는 좌장인 박기성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의 주재로 패널 토론이 진행됐다. 패널에는 오세훈 시장, 에스테르 뒤플로(Esther Duflo) 매사추세츠공과대 교수, 크레이그 리델(Craig Riddell) 브리티시컬럼비아대 명예교수, 최자원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가 참여하여, 안심소득 시범사업 1차 중간조사 결과를 놓고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세션 2 : 해외 소득보장 정책실험 사례 공유]

- 두 번째 세션은 ‘해외 소득보장 정책실험 사례 공유’를 주제로 진행됐다. 미국 시카고시 가족지원서비스부 마크 샌더스(Mark sanders, II) 부국장이 발표자로 나서, 시카고시의 실험 사례를 설명한 데 이어, 미국 로스앤젤레스시의 실험 사례 발표가 진행됐다. 발표는 애론 스트라우스(Aaron Strauss) 미국 로스앤젤레스시 가족을 위한 지역사회 투자부의 선임 프로젝트 매니저가 맡았다.

[미국 시카고시 실험 사례]

- 실험명 : 복원력 있는 시카고 지역사회 시범사업(Chicago Resilient Communities Pilot)
- 지급기간 : '22. 6.~'23. 5.(12개월)
- 지급액 : 월 500달러
- 지급대상 : 시카고 거주 18세 이상, 가구 소득 연방 빈곤선 250% 이하
- 실험규모 : 실험집단 2,613명 / 비교집단 3,624명 (무작위 선정)

[미국 로스앤젤레스시 실험 사례]

- 실험명 : 미국 로스앤젤레스시 소득보장 시범사업
(Basic Income Guaranteed: L.A. Economic Assistance Pilot, BIG:LEAP)
- 지급기간 : '22. 1.~'23. 12.(12개월)
- 지급액 : 월 1,000달러
- 지급대상 : 로스앤젤레스시 거주 18세 이상, 가구 소득 연방 빈곤선 이하
- 실험규모 : 실험집단 3,200명 / 비교집단 5,000명 (무작위 선정)

- 마지막은 스탠포드대 기본소득연구소 소장인 셀 클라인(Sean Kline)이 ‘조건 없이 현금을 지원하는 현대 실험(Exploring Modern Experiments with Unconditional Cash)’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이어 나갔다.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각국에서 펼쳐진 소득보장 정책의 특징을 비교하고, 1970년대 이후 소득보장 실험의 전반적인 흐름을 볼 수 있다.
- 사례 발표 후에는 흥경준 성균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한 패널 토론이 진행됐다. 패널에는 헤이키 힐라모(Heikki Hiilamo) 헬싱키대 사회정책학부 교수, 김상철 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 김진영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손혜림 서울시립대 경제학 교수가 참여하여 다양한 관점에서 소득보장 제도에 대한 풍부한 논의가 이어졌다.

12월 21일(목), 2일차 프로그램

[특별세션 : 세계 소득보장 네트워크 업무 협약 체결]

- 포럼 2일차 특별세션에서는 소득보장 정책실험에 관심 있는 도시·연구기관이 한데 뭉쳐 「세계 소득보장 네트워크(Global Income Security Network, GISN)」 업무 협약을 체결한다. 날로 심화되는 소득 격차 및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가 주도해 국제적 협력 체계를 본격적으로 가시화하는 자리로 내년에는 신규 도시·연구기관 등을 추가 발굴해 네트워크를 확장해 나아갈 계획이다.
 - 이번 포럼에서는 서울시(복지정책실), 미국 로스앤젤레스시(가족을 위한 지역사회 투자부), 시카고시(가족지원서비스부), 스탠포드대 기본소득연구소, 펜실베이니아대 보장소득연구센터 등 5개 기관이 모여 다자 협약을 체결한다.
 - ‘세계 소득보장 네트워크’ 협약의 주요 내용으로는 소득보장 분야 연구 자료, 보고서 등 공유, 공동 연구 수행, 공동 세미나 개최 등이 있다. 서울시는

네트워크를 통해 각 기관에서 추진 중인 실험 방법 및 데이터를 공유하고, 실험 간 비교 연구 등을 추진하여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보완·발전시켜 나아가고자 한다.

[세션 3 : 소득 격차 및 빈곤 완화에 대한 정부의 역할]

□ 이어지는 세 번째 세션에서는 캐나다 경제학자 크레이그 리델(Craig Riddell) 브리티시컬럼비아대 명예교수의 발표를 시작으로 ‘소득 격차 및 빈곤 완화에 대한 정부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다. 크레이그 리델 교수는 건강상 이유로 현장에 참석하지 못하고 원격으로 발표한다.

○ 지난해 캐나다 경제학자 크레이그 리델 교수는 1970년대 북미에서 진행된 부의 소득세(Negative Income Tax, NIT) 실험 결과를 재평가한 보고서*를 발간했다. 1970년대 북미 실험을 근거로 부의 소득세 실험이 노동 공급을 감소시킨다는 일부 문헌이 있으나, 크레이그 리델 교수는 북미 실험 중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실험 집단을 분석하여 노동 공급 감소는 6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정에 한정된다고 밝혔다.

※ “음의 소득세에서의 복지와 근로: 게리, 시애틀, 덴버, 매니토바의 소득유지실험 증거”
(Welfare versus Work under a Negative Income Tax: Evidence from the Gary, Seattle, Denver and Manitoba Income Maintenance Experiments)

○ 덧붙여 크레이그 리델 교수는 재정상 문제로 인해 보편적 기본소득(Universal Basic Income)보다 소득 조사를 기반으로 한 소득보장 제도가 현실적이라고 말한다. 이에 따라 소득 조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인 정보 문제로 인해, 소득보장 제도 설계 및 운영에 있어 정부의 역할을 강조할 예정이다.

□ 발제 이후 좌장인 황윤재 서울대 경제학부 석좌교수의 주재로 패널 토론이 이어진다. 패널에는 앨리슨 탐슨(Allison Thompson) 펜실

베니아대 보장소득연구센터 행정국장, 김현철 홍콩과학기술대 경제학과 교수, 이봉주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민세진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 정경선 회복력 있는 도시 네트워크 이사가 참여한다.

- 현장 참여가 어려운 경우 서울시 유튜브(youtube.com/c/seoullive)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실시간 볼 수 있다.

- 오세훈 시장은 “가난의 대물림을 막고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복지 시스템이 바뀌어야 한다는 절실함 하나로 많은 반대와 우려 속에 시범사업을 시작했다”며, “더 많은 시민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새로운 복지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과 미국, 캐나다, 핀란드 등 세계 각국의 경제·복지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인 이번 포럼이 빈곤과 소득 격차가 완화된 미래사회를 디자인하는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 붙임 1. 「2023 서울 국제 안심소득 포럼」 개요 1부.
2. 「2023 서울 국제 안심소득 포럼」 포스터 1부.
3. 보도자료 관련 질의응답 1부. 끝.

□ 행사 개요

- 행사명: 2023 서울 국제 안심소득 포럼 ※ 최초 개최: '22. 12. 6.
(Seoul International Forum on Safety Income 2023)
- 일시: '23. 12. 20.(수) ~ 12. 21.(목)
- 장소: DDP 아트홀2관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281)
- 주제: 소득보장 제도가 나아갈 길
- 주요내용: 안심소득 1차 중간조사 결과 논의, 세계 소득보장 네트워크 협약 등
- 진행방식: 온·오프라인 병행 ※ 동시 통역(한국어+영어)

□ 진행순서

구분	시간	프로그램		비고
12. 20. (1일차)	09:00~09:40 (40')	특별대담	서울특별시장 에스테르 뒤플로 교수(MIT)	컨퍼런스홀 (언론 공개)
	10:00~10:30 (30')	개회식	개회선언, 환영사, 축사, 기념촬영	아트홀2관 (대시민 공개)
	10:30~10:55 (25')	기조세션	에스테르 뒤플로 교수(MIT) * '19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11:05~12:15 (70')	세션 1	안심소득 시범사업 1차 중간조사 결과	
	14:00~16:00 (120')	세션 2	해외 소득보장 정책실험 사례	
12. 21. (2일차)	10:00~10:30 (30')	특별세션	소득 격차 및 빈곤 완화를 위한 국제 협력, 세계 소득보장 네트워크	
	10:30~12:00 (90')	세션 3	소득 격차 및 빈곤 완화에 대한 정부의 역할	

※ 상기 일정은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상세 내용은 포럼 누리집(<https://sifsi.org>)를 참고 바랍니다.



2023 Seoul International Forum on Safety Income 2023

서울 국제 안심소득 포럼

소득보장 제도가 나아갈 길

2023. 12. 20.(수)~21.(목) | DDP 아트홀2관

주요 연사

 에스테르 뒤플로 Esther Duflo 매사추세츠공과대학교 교수 2019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크레이그 리델 W. Craig Riddell 브리티시컬럼비아대학교 명예교수	 이정민 Jungmin Lee 서울대학교 교수	 마크 샌더스 Mark Sanders II 미국 시카고시 가족지원서비스부 부국장	 애론 스트라우스 Aaron Strauss 미국 로스앤젤레스시 선임 프로그래밍 매니저	 선 클라인 Sean Kline 스탠포드대학교 기본소득연구소 소장	 엘리슨 탐슨 Allison Thompson 펜실베이니아대학교 보장소득연구소센터 행정국장
---	---	--	---	--	---	--

DAY 1 12.20(수) 개회식 10:00 ~ 10:30 환영사 · 서울특별시장 축사 · 김학기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 김성미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장 기조세션 10:30 ~ 10:55 · 에스테르 뒤플로 매사추세츠공과대학교 교수	세션 1 11:05 ~ 12:15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 1차 중간조사 결과 좌장 · 박기성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발표 · 이정민 서울대학교 교수 패널 · 서울특별시장 · 에스테르 뒤플로 매사추세츠공과대학교 교수 · 크레이그 리델 브리티시컬럼비아대학교 교수 · 최차원 한양대학교 교수	세션 2 14:00 ~ 16:00 해외 소득보장 정책실험 사례 좌장 · 홍경준 성균관대학교 교수 발표 · 마크 샌더스 미국 시카고시 가족지원서비스부 부국장 · 애론 스트라우스 미국 로스앤젤레스시 선임 프로그래밍 매니저 · 선 클라인 스탠포드대학교 기본소득연구소 소장 패널 · 헤이키 킬리모 헬싱키대학교 교수 · 김상철 서울사회복지재단 대표이사 · 김진영 고려대학교 교수 · 손재림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DAY 2 12.21(목) 특별세션 10:00 ~ 10:30 소득 격차 및 빈곤 완화를 위한 국제 협력, 세계 소득보장 네트워크 플랜션언 및 협약식 · 서울특별시 복지정책실 · 미국 로스앤젤레스시 가족을 위한 지역사회 투자부 · 미국 시카고시 가족지원서비스부 · 스탠포드대학교 기본소득연구소 · 펜실베이니아대학교 보장소득연구소	세션 3 10:30 ~ 12:00 소득 격차 및 빈곤 완화에 대한 정부의 역할 좌장 · 황윤재 서울대학교 석좌교수 발표 · 크레이그 리델 브리티시컬럼비아대학교 명예교수 패널 · 엘리슨 탐슨 펜실베이니아대학교 보장소득연구소센터 행정국장 · 김현철 홍콩과학기술대학교 교수 · 이봉주 서울대학교 교수 · 민세진 동국대학교 교수 · 정경선 회복력 있는 도시 네트워크 이사	 본 프로그램은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Q1| 안심소득 시범사업 성과평가란 무엇인가요?

- ◆ 안심소득의 효과성과 실현 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해 시범사업 참여가구 대상으로, 5년간('22년 5월~'27년 6월) 성과평가를 실시합니다.
- ◆ 자료 수집을 위해 △기초선조사(급여 지급 전, 1회), △중간조사(급여 지급 중, 반기별 5회), △사후조사(급여 종료 후, 1회), △추적조사(급여 종료 1년 후, 1회) 등 총 8회에 걸쳐 조사가 진행됩니다.
- ◆ 수집된 자료는 지원집단과 비교집단 간 비교와 시계열 변화를 분석하여 안심소득이 7개 분야(①일과고용, ②가계경제, ③주거환경, ④교육훈련, ⑤건강생활, ⑥가족사회, ⑦삶의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여 시범사업 성과를 측정합니다.

|Q2| 중간조사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나요?

- ◆ 중간조사는 설문조사, 모니터링 등의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 ▶ [설문조사] 조사원이 방문하여 가구주와 1:1 면접조사 실시 ※가구원은 온라인 조사
 - ▶ [모니터링] 공적자료(행복e음) 및 금융자료 수집하여 소득·지출 변화 분석

|Q3| 국제포럼을 온라인으로 시청할 수 있나요?

- ◆ 포럼 당일 서울시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 시청 가능하며, 다시 보기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포럼은 동시통역(한국어, 영어)으로 진행되므로, 언어에 맞는 채널에 접속하셔서 시청하시면 됩니다.
 - ▶ 국문 채널 <https://www.youtube.com/@seoullive>
 - ▶ 영문 채널 <https://www.youtube.com/@SeoulCityOfficial>